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이종윤 발행처: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서울교회의 미래를 가꾼다.

2001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 20개 부서 282명

오늘 I,II,III부 예배시 2001년도 교회학교 교사임명식을 갖는다. I부예배에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새가정부 II부예배시에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30대부, 40대부, 50대부, 사랑부, 어린이 오후예배, 영어성경반, 에바다부 III부예배에는 새가족부, 유아부, 유치부, 60대부, 70대부등 20개 부서 282명의 교사가 임명을 받게 된다. 오늘 임명식을 마친 교사는 이 달 말까지 각 교회학교별로 총회를 갖는다.

우리 서울교회는 2001년부터 농아를 위한 에바다부, 영어성경반, 어린이를 위한 오후예배부와 찬양예배부를 신설하여 교육의 질과 폭을 향상시켰으며, 장년부를 나이별로 5개 부로 세분하여 장년교육의 틀을 새롭게 하였다.

특히 대학부, 청년부, 새가정부등 젊은층을 위하여 III부 예배는 청년예배로 드러지게 되었다. 우리교회는 새해에 '임하소서 성령이여'라는 주제하에 ①거듭난 인간 ②성숙한 신자 ③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양성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20개부서를 5국으로 세분하여 전문화된 교회교육을 지향하게 되었다. 교육1국은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 오후예배, 어린이 찬양예배, 2국은 중등, 고등부, 3국은 대학, 청년, 새가정부, 4국은 사랑, 에바다, 새가족, 영어성경부, 5국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부로 새롭게 조직되었다.

피아노-관상목 헌납을 기다린다.

우리교회 새 예배당에 필요한 피아노 15대와 그랜드피아노1대 그리고 심겨질 관상목을 기증하실 분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헌납하실 분은 사무국이나 건축위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새 예배당
입당D-8**

* * *

흥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과거의 기적
그리고 서울교회 새예배당이 대치동에
새워진 현재의 기적을
입이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순결서약식
-새해 첫주일 찬양예배시-
우리 교회는 매해 신년 첫 주 찬양예배 시간에 순결 서약식을 갖는다. 2001년 1월7일에 갖게 될 순결 서약식을 위해 해당되는 젊은이들은 교회학교 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약을 상징하는 반지를 맞추게 된다. 순결서약접수는 12월24일(주일)까지며 오리엔테이션은 12월31일 오후8시30분이다.

몸드려 하나님의 전을 짓자

- 입당 한주전 매일 저녁 은교인 봉사기로 -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입당(25일) 한주를 남겨놓고 새 예배당 현장 청소 및 정리를 위하여 온 교회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봉사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내일 (18일) 부터 한주간 매일 오후7시부터 10시까지 봉사하는 일에 제직은 물론 새가족, 청소년까지도 한 마음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단체 또는 기관별 봉사는 낮시간에도 가능하나 반드시 건축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한다.

입당 감사잔치 열린다.

- 성탄절 오후3시는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 서울교회 새예배당 시대로 들어 가는 시간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준비한 이종윤 목사의 신간 「크리스찬 지도자들」-여호수아·느헤미야와 서울교회 각인이 박힌 수건을 기념품으로 받게 된다.
- 감사예배후에는 우리교회옆 한티공원에서 새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떡잔치를 하게 된다. 이 잔치상준비는 스테반회가 그리고 떡과 과일 음료수는 권사회가 준비하게 된다.

* 성탄 축하 찬양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지휘-김선일 집사, 울겐-안진선, 피아노-백송희)주관으로 성탄 축하 찬양예배를 드린다. 이 찬양예배시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오 거룩한 밤, 할렐루야 등의 은혜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 36:1)

제자의도

벗을 것과 입을 것

에베소서 4: 25 - 32



이종운 목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입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인격의 옷을 갈아입고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9-10절에 본문의 변형구가 나오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사람을 입었다'는 단순과거형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에 끝난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온전히 입은 사람입니다.

25절의 '그런즉'은 '벗었고 입었으니 그러므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높은 도덕성과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졌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병으로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 할 일을 주셨으니 이것은 귀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나사라도 수의를 벗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죄악 가운데서 살던 우리도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입니까?

1. 거짓의 옷을 벗고 참된 옷을 입으라

사도 요한은 거짓의 영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요일 1:20). 거짓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앞에 정직하고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실과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은 나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증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입어야 할 첫 번째 새 옷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2. 혈기의 옷을 벗고 마귀에게 몸을 주지 말라

마귀는 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지 않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 1:20).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분을 내므로 죄를 짓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석 자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분을 내다가 결국은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은 자기를 삼키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 아담,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기의 옷을 벗고 자신을 절제하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3. 도둑질하는 옷을 벗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새 옷을 입으라

한 번 도둑질 한 사람이 또 도둑질하는 것은 또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빈궁한 사람에게 빌려주려면 부지런히 수고하여 자기의 쓸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줄 것까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러야 할 예배, 마땅히 드러야 할 물질, 마땅히 드러야 할 전도의 의

무와 봉사를 도둑질하고도 오히려 남들에게 8계명을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일한 대가와 수고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통은 수고하고 땀 흘리기 보다 가만히 앉아서 먹겠다는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4.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옷을 입으라

더러운 말은 부패하고 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 내지 말아야 합니다. 흉내를 내다가 자기의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권면 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5.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함께 버리고 사랑의 옷을 입으라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이 6가지인데 이것은 함께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덮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벗을 것과 입을 것을 확실히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고 연합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나 분열되는 것이나 불의를 보시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거룩의 영, 연합의 영, 진리의 영, 이것이 새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엡 5:1).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엡 4:20).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엡 4:30).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연합의 영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2권사회 회장을 맡으며

이해순 (2교구)

나의 믿음과 잔에 비해 넘치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순례자를 통하여 제2권사회 회장이란 이름이 나온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며칠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을 무척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 우선 저희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텐데 먼저 불안과 초조

보다는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성경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성경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며 일을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치동 새 예배당 시대에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긴1년을 생각하지 말고

그날 그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365일이 알차게 채워지겠지, 내 생애에 한번밖에 없는 큰일이라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2월6일 권사회 총회를 은혜중에 마치며 바라는 것은 새로 임직 맡은 37명의 회원과 158명의 제2권사회원들이 주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연합하고 화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배 권사님들의 격려와 기도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 되기를

김희숙 권사(5교구)

얼마나 가슴 조이며 기도하고 고대하던 입당인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평화의 문, 자유의 문, 승리의 문, 구원의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예배당을 바라보며

서영희 집사 (8교구)

이제는 마음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 예배당이 지어짐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하루빨리 첫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기다려 집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새 예배당이 완공되었음을 믿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우리모두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와 더불어 살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상처받는 영혼이 없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앞에서 길 잃은 어린양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합니다.

김인순 권사(3교구)

2001년을 바로 앞에 두고 새 예배당 입당의 부푼 기대와 새로운 헌신으로 모든 부서들이 힘써 태동하는 모습이 무척 활기차 보이며 기대가 앞서고, 목사님을 모시고 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도 새 예배당 마무리 공사로 곳곳에서 먼지를 옷삼아 입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며 정리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한 지난 9년간 잘 건지 못하는 권사님들을 차에 모시고 다닌 집사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친척도 하기 어려운 봉사를 마다 않고 해 주셨고 언제나 빙긋이 웃으시는 집사님의 미소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였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봉사하시는 여러

입당을 앞두고

였습니다. 새부대에 새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나의 이사준비 일화

나소정 (청년부)

입당예배를 앞두고 요즈음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더디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사라는걸 해 본 적이 없는 제게, 온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사건이 아닐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여섯 배나 넓은 새예배당은 한 달란트 주셨던 주님이 이젠 여섯 달란트를 맡기시겠다는 뜻인 것만 같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론 다짐을 새롭게 하는 나날이기도 합니다.

처음 서울교회가 세워지던 91년 늦가을, 당시 여고2년생이던 제게는 때이른 흑학을 만난 나목처럼 춥고 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과 경험은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의 출발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지난 9년동안 당시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히려 싱싱한 새 살을 돋게하는 과정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부르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심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온전히 다 겪은후에야 이 모든 일들이 더 커다란 완성과 사랑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회복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묻혀 자기를 죽이고 싹을 틔워성장함으로 큰 나무가 되듯이, 그리고 더 많은 씨앗을 생산할같이, 대치동 새 터에서 우리 서울교회가 할 일은 크고 유익한 나무로 거듭나기 위해서 작은 겨자씨가 되는 일일것입니다.

더욱더 넓고 큰 예배당으로 가는 마음은 기쁘고 자랑스럽지만, 이 마음이 더 큰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 클까봐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겨자씨가 아니면 그것을 퇴출 혹은 한줌으로라도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 그것이 제 이사준비의 일호입니다.

성도님의 기도와 봉사가 우리 교회의 새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크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서로 칭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주옥환 권사(4교구)

할렐루야 높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보게하시고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적적인 입당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입당예배를 앞두고 감사를 마음껏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슴에 느낍니다. 새 예배당 시대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몸된 예배당을 사모하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예배당

윤성남 집사(3교구)

원리와 질서를 펴시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땅위의 한 곳 서울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주님의 종 이종운 목사님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령을 허락하심을 입은 자들을 모이게 하사 주님이 계신 예배당을 건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입당8일전 설례임을 안코

나기태 집사 (12교구)

주님! 아름다운성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방울 한방울 땀과 눈물이 벽돌이 되게 하고 솟아오른 예배당처럼 우리의 믿음도 키우

- 2001년도 교육위원회의 조직 -

지도 : 이성득 목사 위원장 : 이영기 장로
 서기 : 박두호 장로 회 계 : 민순구 장로

| 교회학교 | 지 도 | 부 장 | 부 감 |
|----------------------|------|---------|------------------------|
| 교육1구 (국장: 노승성 장로) | 유아부 | 조대영 전도사 | 이복규 집사, 김시환 집사, 전용순권사 |
| | 유치부 | 최지혜 전도사 | 이계홍 집사, 권장환 집사, 최일춘권사 |
| | 유년부 | 이영희 전도사 | 조정식 집사, 최양진 집사, 김숙자권사 |
| | 초등부 | 신미숙 전도사 | 이상호 집사, 마상수 집사, 이은희권사 |
| 교육2구 (국장: 박두호 장로) | 중등부 | 용석범 목 사 | 최형렬 집사, 이태원 집사, 김윤자권사 |
| | 고등부 | 이태훈 전도사 | 오광환 집사, 박병수 집사, 전수자권사 |
| 교육3구 (국장: 정병두 장로) | 대학부 | 정운돈 목 사 | 임상헌 집사, 이학주 집사, 권순단권사 |
| | 청년부 | 고경선 목 사 | 송인권 집사, 최차순 집사, 김예환권사 |
| | 새기성부 | 이규정 목 사 | 김형택 집사, 이동만 집사, 최양혜권사 |
| 교육4구 (국장: 민순구 장로) | 사랑부 | 이성득 목 사 | 이승우 집사, 김현영 집사, 남태순권사 |
| | 에바디부 | | 홍성주 집사, 이강인 집사, 왕경희권사 |
| | 새가족부 | 지혜영 전도사 | 김세재 집사, 김제술 집사, 이영희권사 |
| | 영양장부 | | 김인수 집사, 김 훈 집사, 윤갑숙 권사 |
| 교육5구 (국장: 이영기 장로) | 30대부 | 황선철 목 사 | 이태상 집사, 서춘식 집사, 이영숙권사 |
| | 40대부 | 이만열 전도사 | 유중관 집사, 이남성 집사, 정영택권사 |
| | 50대부 | 김영한 목 사 | 황정욱 집사, 윤성남 집사, 최금자권사 |
| | 60대부 | 우심화 목 사 | 신순우 집사, 장양일 집사, 이영자권사 |
| | 70대부 | 우심화 목 사 | 박두영 집사, 이재운 집사, 김정희권사 |

이 모여서 훈련받고 카메룬 부흥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중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체험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카메룬의 문선교사 드립니다.

카메룬에서
문형숙 선교사

★연말 임시당회 .임시제직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를 위한 연말 임시 당회가 20일 (수) 2부예배후 열린다.
 2000년 결산과 새해예산을 심의하여 24일(주)찬양예배후 소집될 임시제직회에 제출한다. 반포동시대를 마감할 임시당회 및 제직회가 은혜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란다.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8일 서울여대 총장 인 선위위원회 그리고 탈북난민 초청 음악회에서 경건회를 인도한다.
- 이강인 집사, 허숙 집사(11교구)는 새 예배당 교육용 의자 530개 기증
- 이관규 집사, 이순영 집사(9교구)는 현금위원 카운 40벌 기증
- 신용식 집사, 김신영 집사(10교구)는 핸드벨 카운 20벌 기증
-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1교구)는 임마누엘 카운 30벌 기증
- 김규태 집사, 박미혜 집사(4교구)는 핸드벨 악보 80부 기증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 (1교구)
- ☑ **건축현장 방문팀**
: 대학부 - 18일(월) 새벽기도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방문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사랑부의 작은 기도 ✠

김용은 (사랑부 학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따뜻한 세상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더욱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가 살고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정승락 (사랑부 학생)

예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다리와 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편지 왔어요

신학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년제 신학교에 드디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이 찼습니다. 1회 입학생들이 이제 4학년에 올라간 거지요.

1학년 신입생중에는 가봉 가톨릭 교회에서 온 청장생이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명 무실했던 학생회의 조직이 활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순수한 학생들의 모임이 정착될 조짐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가 학생처를 맡았는데, 학생조직의 에너지가 창조적인 활동으로 발산되기 위해, 지혜롭게 학생회를 가이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선교사의 영적생명은 중보기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운명을 같이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카메룬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시요. 카메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카메룬 복음주의 신학교가 부름 받은 중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3. 임명받은 사명자 위하여
4.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
| 주 일 예 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 요 예 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 요 기도 회 | 오후 9시 |
| 새 벽 기도 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